설박탐 국산화 성공

미원, 화이저이어 세계 두번째로

미원이 기관지염 · 중이염 등 각종 감염증의 치료제인 설박탐의 생산기술을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 해외시장 진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미원이 개발한 설박탐 제조기술은 원개발 기업인 화이저 기술보다 15%정도의 기술적 우위 확보는 물론 6-APA를 원료로 한 공정 단순화 및 경제성 있는 원부재 사용으로 생산원가를 20%정도 낮춤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저는 80년 세계 최초로 설박탐을 개발해 앰피실린과 합성해 유나신이라는 제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연간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1세대 항생제인 앰피실린은 오랜기간동안 사용돼 오면서 항생제의 유효성분인 베타락탐을 절단해 버리는 효소를 만들어 내는 내성이 생겼으나 설박탐은 베타락탐 절단효소 저해제로써 기존 앰피실린의 문제점을 해결한 고효능 항생제로 알려졌다.

유나신 수요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91		1992		199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한국화이저	100	-	120	20	150	25

미원은 설박탐 생산기술을 국내 및 외국에 특허 출원하는 한편 공장 건립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97년부터 본격 생산하기 시작, 첫해에 50억원 정도를 판매하고 2001년에는 최소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설박탐을 이용한 항생제품인 유나신의 국내 시장규모는 91년 100억원에서 92년에는 20% 증가한 120억원, 93년에는 92년대비 25% 늘어난 150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
이와함께 한국화이저는 또다른 설박탐 합성 항생제인 썰페라존을 본사로부터 연간 50억원씩 수입 · 판매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항생제 시장은 기존 항생제의 내성 발현을 억제해 주는 기능을 가진 설박탐과 같은 신세대 항생제가 속속 개발되면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특히 스미스클라인비첨에서 개발한 클라뷰라인산 항생제도 이같은 신세대 항생제로써 기존 항생제인 아목시실린과 합성해 오구멘틴이라는 제품명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 제품은 현재 일성신약에서 수입 · 판매하고 있는데 연간 1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4/8/22>